

부 록

1.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단원 원문(7차 교육과정)

- 1)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 2) 중 학교 『국사』 교과서
- 3)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 금성출판사
 - 대한교과서
 - 두산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 연구계획서

3. 중간보고서 공청회(2003.10.29) 토론문

고등학교급사표지

중학교표지

백지

음성표지

대한앞표지

두산표지

백지

증앙표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관련 부분 서술 분석에 관한 연구 계획서

1. 연구과제명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민주화 운동 관련 부분 서술 분석”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한층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다음 세대의 주역인 중등학생들에게 민주 의식 고취 교육이 필요함
-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취되는데 거쳐야 했던 험난했던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데 효율적임
- 이를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와 관련한 내용이 중등역사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현대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과거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또한 교육 현장에서 내신이나 입시에서 기피되는 경향이 있어 소홀히 다루

어졌기에 현재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중등 역사교과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현재의 민주화된 수준에 걸맞게 서술되어 있으며 부족하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 또한 그 내용이 중·고등학생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어진 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의 성과와 문제점은 보다 나은 교과서 서술 및 중등학교 민주화 운동 교육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음

3. 연구진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역할
1	김종훈	전국역사교사모임 연구소장/ 서울 문창중학교	교사	연구활동 총괄
2	조동근	서울사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책임연구원 / 연구기획 / 분석틀 연구
3	김용석	서울 면목고등학교	교사	교과서서술분석 (:1948-1961)
4	조한경	경기 부천 중흥중학교	교사	교과서서술분석 (:1961-1971)
5	양두영	경기 광명북 고등학교	교사	교과서서술분석 (:1971-1979)
6	이은정	서울 면목중학교	교사	교과서서술분석 (:1979-1987)
7	문지은	경기 광명 충현고등학교	교사	자료조사 / 고등학교교과서 학생이해분석
8	김진숙	경기 안양 대안여자중학교	교사	자료조사 / 중학교교과서 학생이해분석
9	김미정	경기 일산 주엽고등학교	교사	보고서 검토
10	방지원	서울 대영고등학교	교사	보고서 검토

※ 자문

서울 둔촌고등학교 한재호 선생님

서울 상계고등학교 김육훈 선생님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양정현 교수님

4. 연구기간 및 일정 (2003. 6. ~ 2003. 11)

시 기	활 동	비 고
2003. 6. 4.	연구계획서 작성	1 회의
2003. 6. 11.	연구보고서 임시 목차 구성	2 회의
2003. 6. 18.	연구보고서 임시 목차 검토 및 역할 분담	3 회의
2003. 6. 25.	자료 수집(,) 및 개별 분석 계획서 작성	4 회의
2003. 7. 2.	개별 분석 진행 및 검토 회의 (- 4.)	5 회의
2003. 7. 16	개별 분석 진행 및 검토 회의 (- 유신체제의 종말)	6 회의
2003. 7. 30.	개별 분석 진행 및 검토 회의 (- 6)	7 회의
2003. 8. 10.	개별 분석 보고서 작성	8 회의 (+1)
2003. 9. 10.	개별 분석 보고서 종합	9 회의
2003. 9. 24.	연구 보고서 수정 보완	10 회의 (+2)
2003. 10. 4.	중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회의
2003. 10. 29.	공청회 개최	
2003. 11. 22.	보고서 완성 및 최종 점검	12 회의
2003. 11. 29.	보고서 제출	

4. 연구방법

- 1)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의 개념 및 성격을 정리하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설정한다.
- 2) 정부 수립 이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 민주주의의 시련 및 발전과 관련한 시기 개관을 한다.
- 3) 분석 대상 교과서의 성격 및 특징을 개관한다.
- 4) 각 시기 민주화 운동 관련 분석 항목을 설정하고 교과서 분석 기준을 마련한다.
- 5) 분석 항목과 기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한다.

5. 연구내용

1. 서언

- 민주화 운동의 개념 :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로 발전해가기 위해 전개하는 그 사회 구성원의 목적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보통 선거제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장기

집권으로 헌정 질서는 파괴되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이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가혹한 탄압을 행사하면서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철저히 유린되었으며 인권은 말살되었다. 또한 정치적 독재체제 속에서 민중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성과는 부도덕한 지배층이 독점하면서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경제적 민주화 역시 민주화 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고 인권을 보장받으며 경제정의 실현하기 위하여 권위주의 체제에 항거하였던 움직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식민지 경험, 냉전의 영향, 분단체제 등은 한반도에서 민주화를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된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성취를 통해 정치적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리도 자랑스럽고 당당한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얻었다.

민주화의 성취에 기여한 민중의 힘은 역사 발전의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으며 이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이 민중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역사적 책임 의식을 안겨 주었다.

역대 독재 정권은 민주화 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분단을 고착·심화시켰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화는 우리 의식 속에 놓여있던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으며 나아가 민주화의 성취는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 연구의 주제와 필요성
-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 연구의 대상과 범위 : 중등역사교과서 / 정부수립 이후에서 6월 항쟁
- 연구의 내용 : 분석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한다. 각 시기 분석의 기준으로 시기 특징과 다루어야 할 기본 내용을 설정한 후 각 교과서가 관련 부분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 연구의 전개 순서
- 연구의 의의와 한계

II. 민주화운동의 개념 및 민주화 운동의 시기별 개관

1. 민주화 운동의 개념
2. 민주화 운동의 시기별 개관
 - 1) 이승만 정부 (1948년 - 1961년)
 - 2) 박정희 정부 (1961년 - 1979년)
 - 3) 전두환 정부 (1979년 - 1987년)

III. 민주화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 분석

1. 이승권 정부
 - 1) 이승만 독재의 심화 과정
 - 2) 4.19혁명

3) 4.19혁명 이후 각 부문의 민주화 운동 및 통일 운동

2. 박정희 정부

1) 5.16 쿠데타와 박정희 정권의 성립

2) 6.3 시위, 베트남 파병 반대

3) 3선 개헌 반대 투쟁

4) 유신체제의 성립

5)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6) 부마항쟁과 10.26 사태

4. 전두환 정부

1) 12.12 쿠데타

2) 5.17 쿠데타와 전두환 집권

3) 광주 민주화 운동

4)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

5) 6월 항쟁

IV. 결론 : 연구의 정리 및 대안

- 연구 정리

- 대안 제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부분 서술 분석』
중간 보고서 발표에 대한 토론문 (2003.10.29)

천희완(서울 구로고등학교 사회교사)

1.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민주화 운동이란 민주 국가를 성립시키고, 그 민주 국가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기여한 각종 활동을 가리킨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첫째로 민주 국가가 어떻게 성립하게 되었는가를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에 대해서도 분석 평가하는 활동이 기대된다.

2. 대한민국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간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토론자가 표시한 것임).

민주주의 실현의 최소 요건은 보통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이다. 서구에서 이 두 제도는 정치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의 오랜 투쟁 과정에서 제도화 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경우 해방 이후 별 갈등을 겪지 않고 이 두 제도를 정치 운영의 원리로서 수용하였다. 그러나 오랜 독재체제로 인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은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서구의 민주화가 투쟁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도입된 민주주의 제도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특히 식민지 경험, 분단체제, 외세의 간섭 등으로 민주화 장점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보고서 12쪽)

즉,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의 오랜 투쟁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별 갈등을 겪지 않고 민주 정치 제도를 정치 운영의 원리로서 수용하여 성립된 국가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는 사회를 보는 안목이 지난 과거와 관련하여 기술된 것이라고 볼 때,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의 건설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관찰,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기별 개관·분석과 관련하여

14쪽 ‘2. 시기별 개관’에서

‘이승만 정권 시기’와 ‘이승만 정권의 성립’ 이전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먼저 다루고 수립된 대한민국의 성격을 다루는 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1948년에 성립된 대한민국이 그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공화국’임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위하여 활동한 내용도 민주화 운동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고 기술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하여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분석된 이유는 교육 과정이 다음과 같이 기술된 까닭에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민주화 운동’ 용어가 나오는 내용들

제 7차 교육과정은 민주 시민의 양성을 강조하는데,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교과는 주로 국사과에 한정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즉,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해설’에서 ‘민주화’를 검색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 9학년 국사영역

(10) 대한 민국의 발전

8·15 광복 직후 남북 분단 배경, 대한 민국 정부 수립 과정 및 그 이후의 정치 발전 과정을 파악하여 민족의 과제인 평화 통일의 의지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복지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

(가)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

- ① 우리 민족은 즐기친 독립 운동과 연합국의 승리로 8·15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곧 이어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국토가 분단되었음을 이해한다.
- ②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안에 대한 문제로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반탁과 찬탁으로 분열되면서 좌우 대립이 본격화되었음을 파악한다.
- ③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한국 문제는 유엔에 상정되었고, 유엔의 결의에 따라 역사상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이해한다.
- ④ 광복 후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하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며, 이들은 6·25 전쟁을 자행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음을 이해한다.
- 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격퇴시켰으나, 결국에는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민족 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심화 과정]

- ①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곧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김구와 김규식 등에 의해 전개된 남북 협상의 노력이 미·소 간의 냉전 체제하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나) 민주주의의 시련과 경제 개발

② 4·19 혁명은 자유당 독재 정권을 타도한 근대적 시민 투쟁이었으며, 민주적 역량을 과시한 민주화 운동이었음을 이해한다.

(대)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① 박정희 정부의 10월 유신 선포 후 자유와 권리가 억압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10·26 사태가 발생하여 유신체제가 붕괴되었음을 이해한다.

②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여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났음을 설명할 수 있다.

[심화 과정]

① 현재의 정부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론한다.

○ 10학년 국사

(3)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라) 정치적 변화

(나) 정치 상황의 변동

⑨ 1960년대 이후의 현대사는 민주화를 위한 줄기찬 노력과 국력의 신장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 고교 한국 근현대사(선택 교과)

(4) 현대 사회의 발전

(나)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ㄷ) 민주주의의 시련과 회복

② **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이 제정되면서 점차적으로 정치,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어, 민주주의 발전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음을 이해한다.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 국사

(3)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④ 정치적 변화

㉠ 정치 상황의 변동

한편,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은 냉전 체제 하에서의 좌우의 분열과 대립 속에 분단과 6.25 전쟁을 겪기도 하였으나, 우리의 현대사는 **민주화**를 위한 줄기찬 노력과 구력의 신장을 이루어 가는 과정임을 인지한다.

(5)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④ 사회의 변동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평등 사상에 기초한 천주교가 확산되고, 민중적, 민족적 성격의 동학이 창시되어 사회 변혁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음도 탐구한다. 마침내 19세기 후반에는 개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 신분 질서가 해체되고, 만민 평등의 시민 사회가 형성되어 갔고, 해방 후의 현대사는 **민주화**의 과정이었음을 학습한다.

○ 한국 근현대사

(4) 현대 사회의 발전

②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획책과 독재화 과정을 살펴보고 4.19 혁명의 배경과 원인, 진행 과정과 민주당 정권의 수립,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 등을

학습한다. 이어서 장면 내각 시기의 사회 불안과 516 군사 정변에 따른 군정 실시 및 박정희 정부의 성립 등을 학습하고 헌정 체제의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또,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에 따른 유신 체제의 성립이 민주 헌정 체제로부터 크게 이탈하였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이탈 현상이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음을 파악한다. 그리고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이 제정되면서 민주 헌정 체제가 정비되고 점차적으로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어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음을 학습한다.

이러한 기술은 사회과(국사포함) 교육 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함께 이 공화국을 성립시킨 데 대해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요 교육 목표로 삼지 않았거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출범하지 못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이 원목(1799년)에서 설파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적인 통치자에 대한 서술, 동학농민운동 참가자의 주권자로서의 활약(동학교도와 정부는 서정(庶政)에 협력하기로 한 것, 일종의 지방 기구로서 집강소를 설치 운영한 것 등), 갑신정변과 독립협회에서 일종의 입헌군주제를 제창한 것, 공화정체(共和政體)의 자주독립국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신민회 활동, 3·1 운동에서 나타난 국민주권의식, 민주공화국 체제를 표방한 임시정부조직과 활동, 민주주의를 표방한 신간회 조직과 활동,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 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1945년 해방 직후의 자주적인 정부 수립 활동(건주 활동, 기타) 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의 민주국가 건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연구되어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편찬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음이 교과서에 서술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4.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 서술은 경제 결정론의 관점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균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서술은 아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의 기여보다는 학생을 비롯한 일종의 지식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이러한 관점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가 잘 되어 저절로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식의 기술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은 개발독재의 정당화에 이용되었으나 동시에 민주주의의 제도 정착과 민중적 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갈 주체를 형성시키기도 하였다. (보고서 12쪽)

▶ 4·19 혁명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은 경제적 위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 원조는 냉전 체제를 유지시키고, 대상 지역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기 위한 대외 정책의 일환이었다. (보고서 18쪽)

5. 교육 과정과 관련된 제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이므로, 연구 결과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쉬운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교육 과정과 관련된 제안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6. 기타

(1) 다음 글에 대하여 의미가 있다.

즉, 7차 근현대사는 고등학생 중 아주 일부만이 채택하는 교재이므로 이와 같이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설혹, 이와 유사한 분석을 한다고 하여도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한다.

5차 '6쪽', 6차 '8쪽', 7차 '?쪽'

혹은 5차 '6쪽', 6차 '8쪽', 7차 '?쪽 + 근현대사 ??쪽×채택하는 비율'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배우는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별 차이가 없음이 밝혀진다면 그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심화과정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는 모두 4종으로 (주)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주), (주)두산,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교과서는 근현대사 부분만을 특화했기에 서술 분량 면에서 당연히 이전의 교과서보다 크게 증대하였다. 현대사 부분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있는 부분이 과거 5차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 6쪽¹⁾, 6차 고등학교 국사의 8쪽²⁾이었다. 이에 비해 근현대사 교과서는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3배정도 분량의 증대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 36쪽)

표 4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 분량 비교

교 과 서	해당 쪽수	분량 ()
5 차 고등학교 국사	180-185	6
6 차 고등학교 국사	202-209	8
7 차 「·성」 교과서	276-297	22
7 차 「·한」 교과서	265-282	18
7 차 「·산」 교과서	284-309	26
7 차 「·양」 교과서	294-317	24

1) 교육부, 『 』 1994, 180-185 쪽

2) 교육부, 『 』 1998, 202-209 쪽

(2)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회의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 1960년대 박정희 정권, 한일회담반대투쟁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성립한 제3 공화국에서는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 등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전환하였다. (보고서 22쪽)

(3)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평가 뒤에 보고서 집필자들의 의견이 첨가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2차-6차 교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승만 정부의 부정 부패와 독재 → 학생·시민들의 의거 → 민주당 정권의 무능 → 5·16 군사 정변의 불가피성'이라는 논리 구조 속에서 4·19 혁명을 반독재 민주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고서 55쪽)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부분 서술 분석』
중간 보고서 발표에 대한 토론문(2003.10.29)

한재호(서울 둔촌고등학교)

1. 민주화 운동의 중심 세력은 누구인가?

한국 민주화 운동을 중앙 정치에 있어서 절차의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그 중심 세력은 뭐니뭐니해도 학생과 종교인들이었다. 물론 그들이 중심 세력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조직화되어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2. 절차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일제 강점기의 비민주적인 악법이 8·15 광복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가?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와 아울러서 친일 잔재 청산이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민주주의가 절차와 형식의 문제인가? 형사소송법이 엉망이라서 인권 탄압이 이루어졌는가? 혹시 민주주의는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3. 4·19 혁명에 대하여

4·19 혁명이 눈앞의 압제자는 몰아내지만 압제를 가능케 하였던 조건은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이 반공 체제인가?

4·19 혁명을 일제 강점기 민족 해방 운동, 해방 직후의 민족 자주 국가 수립 운동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5·16 군사 정변이 정당화되는가? 그래야만 4·19 혁명 직후의 통일 운동이 혼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4·19 혁명은 민주당 정부의 수립으로 어느 정도 완결되었고, 민주당 정부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나마 뿌리내리려 노력한 것은 아닌가? 4·19 혁명 직후에 제한적이거나 통일 운동과 노동 운동 등이 활성화된 것은 장면 내각의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는가? 장면 내각의 미온적인 정책에 불안을

느낀 정치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민주 헌정을 파괴했다고 볼 수는 없는가?

4. 박정희 정부에 대하여

가. 박정희에 대하여

박정희 정부가 18년을 집권했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박정희의 개인사는 한국근현대사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친일파 숙청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야기만큼이나 근거가 박약한 이야기이다. 관동군 장교 복무 경력, 헌정 유린, 정경 유착, 인권 탄압과 조직 사건 조작 등 각종 범죄 행위와 무엇을 바꾼다는 말인가? 박정희에 대한 인물 탐구가 어렵다. 물론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가 고초를 겪은 분의 가족사와 함께.

나. 민주주의의 시련에 대하여

- 학교 가는 길에 과학 선생님께서 좌측 통행을 안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어 새끼줄로 만든 길가의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었다.
- 경찰서 정보과장이 학교 강당에 와서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대통령을 마르고 닭도록 하고 싶으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유신을 선포하지 지금 유신을 선포하겠느냐고.
- 송해가 TV에 나와 커다란 옷을 입고 이것이 나한테 어울리냐고 물었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코믹하게 역설한 것이다.

학생들은 헌법 개정같이 거창한 말로는 민주주의의 유린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생활 속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5. 6월 민주 항쟁에 대하여

가. 왜 대통령 직선제였는가?

교과서나 이 보고서에 의하면 6월 항쟁 전의 개헌 논의가 대통령 직선

제 개헌을 할 것인가,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당시의 개헌 논의 초기에는 신군부 세력이 띄운 의원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 개헌을 할 것인가, 민주화운동세력이 내세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컸었다. 실제 당시 많은 헌법학자나 정치학자, 정치인 등이 TV 토론이나 지상 토론에 나와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듯한 내용 - 분단 상황에서는 정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제 좋다. 1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좋다. 둘의 장점을 따 의원집정부제가 좋다.- 을 갖고 설전을 벌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각제가 옳으나, 대통령제가 옳으나’ 하는 문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가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였다. 당시의 역사적 과제가 1961년 이후 지속된 군부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었다고 전제할 때, 정치 군인들이 권력 분점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가 옳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는 권력에 관한 한 All or Nothing이며, 따라서 군부 독재의 잔재까지도 일거에 일소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세력에게는 쉬운 승리를 예감할 수 있는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각제·의원집정부제 개헌이 어려워지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직선제 쪽으로 집중되자 전두환은 4월 13일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돌파하고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쟁취한 민주화 운동이 6월 민주 항쟁이며, 비록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군부 독재는 끝나가고 있었다.

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다른 점은?

6월 항쟁이 광주 항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6월 항쟁은 국본이라는 운동의 지도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도면밀하게 운동을 조직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국 정치와 언론의 중앙 중심 사고가 부마 항쟁 및 광주 항쟁과 6월 항쟁을 차이가 나게 하지는 않았을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관련 부분 서술 분석

펴낸날 : 2003년 11월

펴낸이 : 박 형 규

펴낸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쇄처 : 경희교육IP

02-2263-6043(代)

E-mail: khip2@korea.com

<http://www.booktoron.com>
